

‘나눠주기식’ 균형발전은 이제 그만



한 용 수 의
돌직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블랙홀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인제와 자본, 신산업이 모두 수도권으로만 쏠린다. 지방은 ‘소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처지다. 역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세웠다. 지방 투자 기업엔 막대한 보조금을 줬다.

성적표는 참담한 실패다. 지역의 버팀목이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맥을 못 춘다. 대중국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수요 감소 탓이다. 결국 연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업 R&D 비용의 80%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매년 고향을 떠난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 경제 생태계 전환을 위한 초광역 거점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핵심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과 ‘정책 자원의 분산’이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지나치게 공평한 배분에만 집착했다. 시도 단위로 타깃 산업을 3~5개씩 쪼개 지정

했다. 기회발전특구마저 지역별 면적 상한에 맞춰 잘게 나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임계 규모(Critical Mass)’를 갖추지 못했다. 낙후 지역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더 주는 설계는 역설적으로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별 거점에 강력한 성장엔진을 달아 줘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5극3특의 성장엔진은 이름만 바꾼 사업이 되어선 안된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배후 산업공간,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이 한데 얹혀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융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능적 분담과 공간적 집중도 필요하다. 대기업 연구소나 청년 선호 창업·정주 기능은 지방 광역시 등 권역 중심도시로 집중해야 한다. 인재 유출을 막을 ‘인구 댐’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반면 대규모 생산기지는 광역시 배후 시·군에 배치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 중심도시와 배후공간을 ‘60분 교통체계’로 묶어 거대한 단일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고숙련 인재가 지방에 남는다.

정책의 패키지도 필요하다. RISE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저점국립대 육성, 지역 R&D 자금, 특구 지정을 개별 사업으로 흩뿌려선 안 된다. 지역 투자 앵커기업의 수요에 맞춰 일괄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도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뜻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점은 매우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이정표다. 이제는 출범한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적극 활용해 투자 입지와 교통 인프라를 윈스톱으로 조정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예산 집행액이나 MOU 체결 금액 같은 보여주기기 지표는 의미가 없다. 프로젝트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R&D 기능이 실제로 이전됐는가.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활성화됐는가. 실질적인 산업구조 개선 효과가 유일한 잣대여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곧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소멸이다. 균등 분산이라는 온정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엔진을 태워야 한다.

/세홍=hys@metroseoul.co.kr

유전자 소프트웨어 시대… 제약바이오와 인간



김 상 회

이 청 하
(유통&라이프)

최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핵심 모티브는 놀랍게도 유전자 억제 및 편집이다. 주인공 피터 파커는 거미 DNA의 돌연변이로 통제 불능에 빠진 자신의 체내 생물학적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유전자 억제 칩을 발명한다.

과거 슈퍼히어로의 무기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나 토르의 망치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체내 DNA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로 혁신 영역이 이동했음을 대중문화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의 전환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바이오 기술은 물리적 외형을 깎아내거나 독성 약물

시대를 지나쳤다. 생체 신호 전달 체계와 유전자 프로필을 직접 탐색하고 재설계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최근 빅파마 모데나는 mRNA 기반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소식을 알렸다. 암 환자의 암세포 돌연변이 정보를 분석해 신원 정보를 추출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환자만의 암세포 표식을 유도하는 mRNA를 제작한다. 체내 면역세포는 이 mRNA가 만들어낸 가짜 표식을 통해 항암 기전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약물이라는 물리적 폭탄을 투척하는 대신 체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데 그쳤다면 ‘K비만약’은 체지방 연소와 동시에 제지방(근육량)을 보존하도록 체성분 비율을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다. 미용의료 분야 또한 세포 본연의 재생 메커니

즘을 부팅시키는 생물학적 접근으로 탈바꿈했다.

다만 인간 유전자까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될수록 더욱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유전자를 고치고 생물학적 한계를 보완한다고 해서 인간 본질까지 바꿀까.

유전자 편집 기술로 피터 파커의 돌연변이 징후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을 위해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선택은 피터 파커의 몫이다. 돌연변이가 만든 괴물이든 첨단 히어로든 중요한 본질은 피터 파커의 양심에 따라 달라진다.

차세대 신약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다 한들 그 기술을 움직이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다. 첨단 바이오의 최전선에서 ‘인간성’이라는 본질을 끊임없이 되짚어봐야 할 이유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6일 (음 7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0년생 천리 밖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72년생 금전거래를 피하세요. 84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4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1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큰 법입니다. 73년생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85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50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6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보게 됩니다. 86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51년생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3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5년생 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7년생 길한 하루입니다.



52년생 가고자 해도 쉽게 나가지가 어렵겠습니다. 64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비우고 맑게 하도록 하세요. 7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88년생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53년생 권력에 아랑곳하지 말고 생활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줄 것입니다. 77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89년생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54년생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66년생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78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세요. 90년생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55년생 멀리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보세요. 67년생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79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고 즐거움도 큼니다.



56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8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8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합니다. 92년생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0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2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년생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푸세요.



59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1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3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5년생 동북 방위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합법과 불법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필자가 법을 1학년 2학기 공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조그만 지식이 생기다 보니, 법을 몰라 고민하는 주변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보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될까?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물리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의외이기도 하다.

녹음하는 본인 목소리가 그 녹음에 들어가느냐 하는 점이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다.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묻고 그 통화를 녹음했다면 적법한 녹음이다.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화 당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행동했다가는 도리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2			3
			3				8
		2		4		7	
6							7
		9				3	
	7						2
		1		5		8	
8				7			
5			4				6

9	6	2	7	9	8	1	4
7	2	8	1	9	6	5	3
1	5	8	6	3	2	7	9
9	8	4	9	1	7	2	6
2	6	1	5	9	7	8	1
5	7	1	6	2	8	9	4
6	5	7	9	8	1	9	2
1	9	7	5	2	4	6	8
8	1	2	9	1	6	5	7

1	9	2	1	8	7	5	6	3
9	5	1	2	6	2	9	7	8
7	6	8	5	9	1	2	4	3
2	8	9	5	6	9	5	2	1
1	7	5	9	1	2	6	8	2
6	1	9	8	2	1	7	5	9
9	9	1	6	7	8	2	1	5
8	2	6	9	1	5	2	9	7
5	1	7	2	1	5	8	9	6